

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, 울산 조선사 현장 방문
-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

- 취임 일성으로 국가전략적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경쟁력 유지·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코자 2월 22일 조선산업 허브인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방문했음



- 김행장은 이날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, 원유시추선, 부유식 원유·가스생산저장설비(FPSO : Floating Production, Storage & Offloading Unit) 등 고부가가치 선박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- 또한, “최근 해외선주들의 先금융後발주* 추세에 적극 대응, 상담 초기 단계부터 금융지원 의사를 적극 표시함으로써, 국내 조선사들이 원활한 수주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것”이라고 밝힘

* 금융차입을 주선하는 국가기업에 발주

- 현장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김행장은 본부장 등 주요간부들도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음

※ 2011년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방향(별첨)

2011년 지원 목표 : 20조원(대출 6.1조원, 보증 13.9조원)

국내외 해운사앞 선주금융 지원강화

* 입찰단계부터 선주앞 지원의향서 등 적극 제시로 국내 수주지원

조선사앞 선박제작자금 및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지속 추진

문	선박금융부 기획팀장 이기호 (☎ 02-3779-6317)
의	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(☎ 02-3779-6065)



(별첨)

2011년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방향

- 2011년 지원 목표 : 20조원(대출 6.1조원, 보증 13.9조원)

- 중점 업무추진 방향
 - 국내외 해운사앞 선주금융 지원강화
 - 고부가가치선 부분의 국내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선주앞 금융지원(직접대출, 대외채무보증) 확대
 - * 입찰단계부터 선주앞 지원의향서 등 적극 제시로 국내 수주지원
 - 국적선대(國籍船隊) 확보를 위한 국내선사(國內船社) 발주 외항선박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 - 조선사앞 선박제작자금 및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지속 추진
 - 기수주 수출선 건조지원용 제작금융 및 조선사 협력중소기업 결제용 네트워크대출은 조선사의 수요에 맞춰 적기 지원
 - 신규 수주 지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등 이행성보증 적극 발급

